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주가(25/12/12)	65,200원
상승여력	—

영업이익(25F,십억원)	—
Consensus 영업이익(25F,십억원)	—
EPS 성장률(25F,%)	—
MKT EPS 성장률(25F,%)	—
P/E(25F,x)	—
MKT P/E(25F,x)	—
KOSDAQ	937.34
시가총액(십억원)	1,629
발행주식수(백만주)	25
유동주식비율(%)	71.6
외국인 보유비중(%)	5.0
베타(12M) 일간수익률	1.81
52주 최저가(원)	6,170
52주 최고가(원)	65,200

(%)	1M	6M	12M
절대주가	68.7	268.4	936.6
상대주가	63.1	210.2	655.7



[로보틱스]

박선영

seunyoung.park@miraeeasset.com

클로봇

탐방노트: 범용 S/W로 로봇 시장과 함께 성장

기업 개요: 실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장 강자

클로봇은 국내 실내 자율주행 분야 최초 상장 기업으로, 하드웨어 제조에 의존하지 않는 범용 자율주행(카멜레온)·통합관제(크롬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해당 핵심 소프트웨어들은 다양한 제조사의 다양한 종류의 로봇에 적용 가능하며, 로봇 생태계 전반에서 모빌리티를 위한 핵심 S/W로 자리잡고 있다.

활용되는 사업부는 서비스 로봇, 필드 로봇, 물류 로봇 사업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안내, 방역/청소, 배달, 순찰, 물품 이송 로봇 등을 다룬다. 주행 목적(안내, 청소, 배송 등) 및 주행 형태(바퀴형, 4족 보행 등)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다.

고객사 확장을 통한 탑라인 성장 지속

동사는 19~24년 동안 CAGR 72%의 가파른 외형 성장을 달성했으며, 서비스·필드·물류 등 전 사업부문의 고른 확장이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특정 제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제조/물류, 병원, 공공기관 등으로 고객 스펙트럼이 빠르게 확대되며 현재 13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했다. 24년부터는 보스턴다이나믹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로봇 H/W 강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본격적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25년 역시 고객사 및 서비스 영역의 확대에 매출의 지속적 고성장이 예상된다.

26년에도 신규 도메인 확장으로 외형 성장 기대

클로봇은 로봇 H/W 조달 역할을 하는 자회사 로아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 확대를 꾀하고 있다. 동사의 타겟은 물류 로봇 솔루션, 건물 내 배송, 전문 청소 등으로 고성장 도메인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사용량 기반 구독 서비스인 RaaS 모델 도입을 통해 고객을 확대하고 반복 수익 창출을 통해 수익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6년에는 모빌리티·물류·청소로봇 수요 확산, 국내외 제조 공장의 증설 사이클, 산업현장 안전 규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로봇 산업 확장에 따라 로봇 모빌리티 S/W에 대한 수요도 구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초기 성장 국면에 위치한 만큼 단기 이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 점유율과 적용 도메인 확장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결산기 (12월)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십억원)	12	21	24	33
영업이익 (십억원)	-2	-2	-6	-7
영업이익률 (%)	-19	-9.5	-25.0	-21.2
순이익 (십억원)	-11	-5	-22	-7
EPS (원)	-	-509	-2,059	-313
ROE (%)	-	78.5	-174.1	-15.7
P/E (배)	-	-	0.0	-28.5
P/B (배)	-	-	0.0	3.7
배당수익률 (%)	-	-	-	0.0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클로봇,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기업 개요

로봇 자율주행 및 통합 관제 S/W 전문 기업

동사는 지능형 클라우드 로봇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2017년 설립되었다. 사명은 클라우드(cloud) 로봇(robot)에서 clo와 bot을 따왔다. 김창구 대표는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10년간 로봇 연구를 해오던 중,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의 발전을 전망하고 창업하였다. 동사는 실내 자율주행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상장되었으며, 24년 10월 기술성 평가 'A,A' 등급을 받고 기술특례로 상장되었다.

로봇 산업 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로봇 부품 또는 완제품 제조에 집중하는 구조 속에서, 동사는 H/W 직접 생산하지 않고 로봇의 자율주행 및 통합 제어를 위한 핵심 S/W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동사 S/W는 다양한 종류의 로봇에 통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현재 약 130여개의 고객사에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자회사 로아스(ROAS)는 로봇 제조사에서 안정적으로 H/W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며 사업 확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자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창업과 동시에 다수의 국내 대기업들에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였으며, 기술 사업성을 바탕으로 2018년 현대자동차와 롯데의 시드 투자 후 네이버, 산업은행 등에서 후속 투자를 받았다. 2022년에는 현대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솔루션 “카멜레온”에 대해 9.8억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에는 스마트 물류센터 관련 MOU를 체결하면서 실내 자율주행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해나갔다.

2024년부터는 로봇 H/W 강자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현대차의 보스턴다이나믹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2월 현대자동차 제조 공장에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SPOT’을 활용한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 3월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제조, 물류 로봇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그림 1.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서비스 제공자, 클로봇



자료: 클로봇,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핵심 기술

동사가 상용화한 주요 소프트웨어 두 가지는 로봇 엣지에서 작동하는 1) 범용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 카멜레온(Chameleon),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2) 국내 최초 이기종 로봇 관제 솔루션 크롬스(CROMS)이다. 해당 솔루션들은 동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들로 주요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 권리를 견고하게 확보하고 있다.

카멜레온은 LiDAR, 카메라, IMU 등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로봇의 안정적인 주행과 최적 제어를 지원하며, CROMS는 다양한 제조사의 이기종 로봇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여 로봇들간 실시간 경로를 최적화하고 충돌방지를 지원한다.

1) 카멜레온(Chameleon): 국내 최고 범용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

21년 공식 출시된 범용 실내 자율주행 솔루션 “카멜레온”은 동사의 경쟁력을 이루는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카멜레온은 로봇 단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로 모빌리티 로봇에서 산업용 장비까지, 주행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서 안정적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어떤 로봇 제조사 플랫폼에도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름 그대로 카멜레온처럼 어떤 기기에도 적용되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만든다.

활용되는 사업부는 서비스 로봇, 필드 로봇, 물류 로봇 사업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서비스 로봇 사업부에서는 안내, 방역/청소, 물품 이송 로봇을, 필드 로봇 사업부에서는 순찰 로봇을, 물류 로봇 사업부에서는 AMR 등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물품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로봇을 다룬다. 주행 목적(안내, 청소, 배송 등) 및 주행 형태(바퀴형, 4족 보행 등)에 관계없이 주행 기능이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로봇에 적용 가능하다.

카멜레온은 딥러닝 기술과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는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바닥 단차 감지, 낙상방지 주행, 로봇 형상에 따른 경로 계획, 객체 인식을 통해 장애물 회피 등을 개선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Point Cloud 방식을 활용한 고정밀 지도 구현을 통해 정지 정밀도 $\pm 1\text{cm}$, 주행 정밀도 $\pm 2\text{cm}$ 를 구현해냈다(기존 Grid 방식의 위치 정밀도는 $\pm 5\text{cm}$).

올해 10월에는 카멜레온 v3.0을 공개했다. 카멜레온 v3.0은 카메라 기반 비전 SLAM(v-SLAM) 기술을 적용한 ‘Chamel-Eye’로 기존 LiDAR의 한계(환경 변화나 반사체에 대한 취약성)를 개선했다. Chamel-Eye는 카메라 영상으로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인식하고 안정적 위치 추정과 고정밀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CPU 사용률 84% 감소, 연산 속도 42% 향상, 정확도 30% 개선을 통해 운영 효율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내 대기업 반도체 라인과 가정용 로봇에서 기술검증(PoC)을 완료했다.

2) 크롬스(CROMS): 국내 유일 이기종 통합 관제 솔루션

20년 출시된 크롬스(CROMS, Cloud Robot Management System)는 원격으로 로봇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로봇 통합 관제/제어 시스템으로 서버 단에 설치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이다. 로봇 제조사 및 운영체제(OS) 종류에 관계없이 다양한 이기종 로봇을 한 번에 100대 수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크롬스는 다수의 로봇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트래픽 컨트롤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트래픽 컨트롤 기술을 활용하면 여러 대의 로봇이 움직이면서 작업 경로가 겹칠 경우 로봇 간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이기종의 로봇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고 운영 시나리오 변경 및 업데이트, 로봇 사용 시간이나 사용 패턴 등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다.

보통의 로봇 기업들은 자사의 로봇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크롬스는 로봇 제조사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로봇 하드웨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들을 따로 관리하다 보면 충돌 위험, 경로 계획 오류 등이 생기는데 크롬스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판단하여 정리한다.

그림 2. 범용 실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Chameleon



자료: 클로봇,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이기종 다중 로봇 제어/관제 시스템, CROMS



자료: 클로봇,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비즈니스 모델

주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로봇 솔루션 사업”과 “로봇 서비스 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의 고객은 로봇 제조사다. 동사의 자율주행 또는 로봇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를 로봇 제조사에 공급한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카멜레온은 로봇 한 대당 발생하는 라이선스 매출과 로봇 모델별로 커스터마이징하여 S/W를 설치 시 발생하는 포팅(porting) 비용이 발생한다. 로봇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 크롬스는 라이선스와 서비스 비용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

서비스 사업의 주요 고객은 맞춤형 모빌리티 로봇(물류, 안내, 방역 로봇 등)을 통해 자동화가 필요한 고객들(물류 창고, 박물관, 공항 등)이다. 단순히 동사 로봇 소프트웨어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도입 후 바로 사용만 하면 되도록 복잡한 자동화 프로젝트 전체를 대행해주는 턴키(turn-key)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동사가 자회사 로아스를 통해 글로벌 로봇 제조사에서 로봇을 수급해오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로봇에 동사의 주행/관제 소프트웨어를 탑재 후 모빌리티 로봇이 필요한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모델이다.

그림 4. 클로봇 주요 S/W 및 사업 영역



자료: 클로봇,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로봇 하드웨어를 소싱해오는 자회사, ROAS



자료: 클로봇,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로봇 생태계 내 멀티로봇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S/W를 제공

동사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하드웨어를 중심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대부분의 로봇 산업 내 기업들과 달리 하드웨어 종속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체 소프트웨어 역량이 부족한 하드웨어 제조사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클로봇은 그 중에서도 매니플레이션(로봇팔)이 아닌 모빌리티에 특화되어있다. 이를 통해 국내 로봇 생태계 내에서 자율주행 및 통합관제 S/W를 제공하는 독보적 위치를 구축했다.

카멜레온은 로봇 제조사나 로봇 형태와 무관하게 탑재 가능한 범용성이 특징이다. 따라서, 로봇 완제품 시장이 파편화된다하더라도 고객사가 몇 군데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산업의 성장에 따라 고객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로봇의 주행 형태가 바퀴형, 로봇 개의 4족 보행, 휴머노이드의 2족 보행으로 다양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어떤 폼팩터에서도 카멜레온의 주행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크롬스도 마찬가지로 특정 브랜드의 로봇이 아닌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의 로봇에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사 여러 로봇만을 제어하는 ‘멀티 로봇 제어’에 그치는 반면 크롬스는 종류가 다른 로봇들까지 동시에 제어하는 ‘이기종 멀티 로봇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사 S/W 대비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안내 로봇, 순찰 로봇에서 시장점유율 확보

클로봇은 다양한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안내 로봇과 순찰 로봇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안내 로봇에서는 LG전자가 관련 사업을 베어로보틱스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시장공백을 성공적으로 흡수했다. 현재 베어로보틱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안내 로봇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주요 고객인 박물관, 전시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것도 클로봇의 점유율 확대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순찰로봇 시장에서 동사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팟이라는 하드웨어에 순찰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상업화해 공급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스트레치(Stretch)라는 물류 로봇, 아틀라스(Atlas)라는 휴머노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에 추가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산업 현장 안전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대기업들의 감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중단기적으로 순찰 로봇의 추가 수요가 명확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세 사업부 중 순찰 로봇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으며, 향후 회사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외형 성장 지속 및 신성장 동력 확보 기대

동사는 연결 기준 '19-'24년 CAGR 72%로 성장하며 외형 성장을 지속해왔다. 해당 성장은 특정 사업부가 아닌 서비스, 필드, 물류 사업부, 그리고 자회사 로아스까지 전 사업부문의 고른 확대에 기인하며, 이는 사업구조가 안정적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년부터는 자회사 로아스와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융합 비즈니스를 통해 신규 서비스 확대, 해외 진출을 목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류 로봇 솔루션 사업으로의 확장 그리고 로봇 구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RaaS(Robot-as-a-Service)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병원/오피스, 물류센터, 배송 등에서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전문 청소 로봇, 건물 내 배송 서비스 시장 진입을 목표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은 올해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약했으나, 내년에는 전문청소 로봇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 청소로봇 시장은 B2B, B2G형태의 서비스로 2033년까지 연평균 약 15%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플랜트나 대형 경기장 등 초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침투율을 확대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차 조지아 공장 레퍼런스와 같이 내년 미국 내 공장 증설 사이클과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추가 확장의 기회도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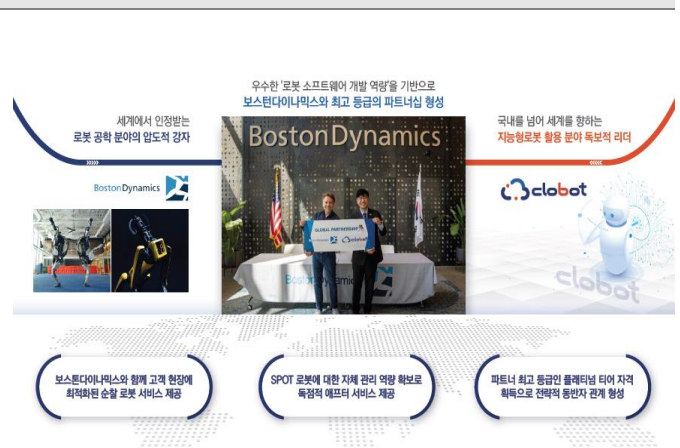
다만, 로봇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경쟁력을 위해 신규 투자는 불가피하며, 단기적인 이익 개선을 기대하기 보다는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외형 성장을 바라보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전체 로봇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동사의 S/W가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의 크기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RaaS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로봇 서비스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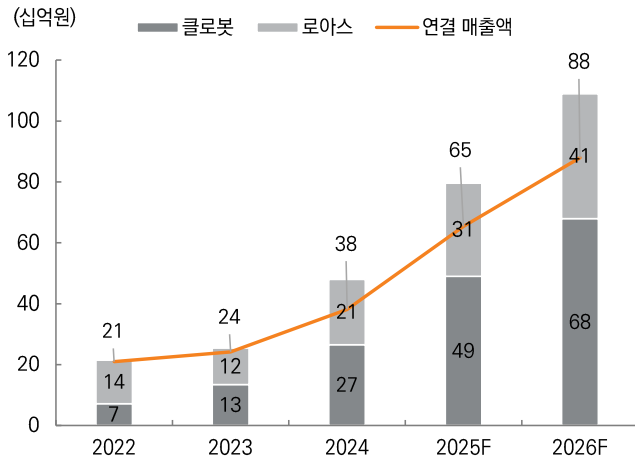
자료: 클로봇,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보스턴다이나믹스와 4족보행 로봇 SPOT에 대한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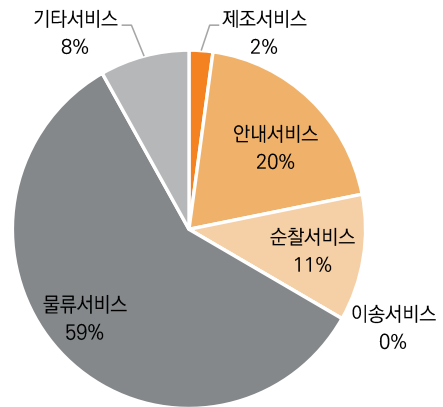
자료: 클로봇,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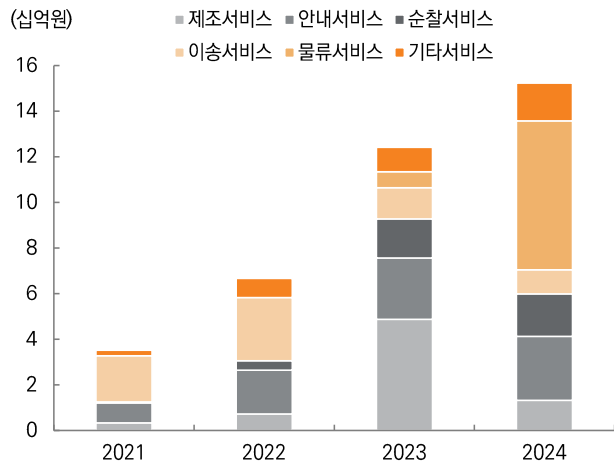
자료: 클로봇 추정,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3Q25(누적) 서비스 사업부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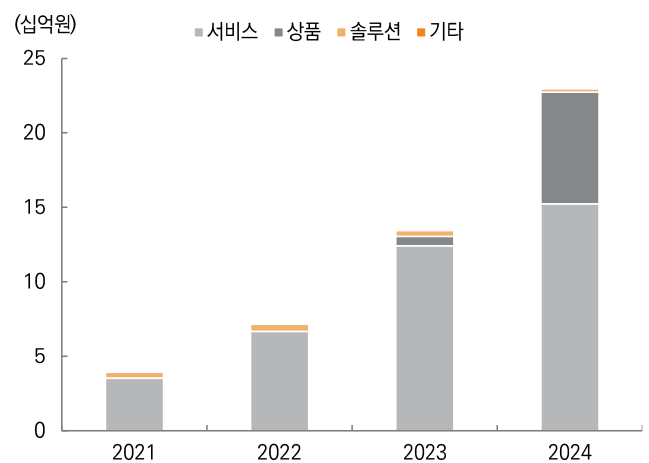
주: 연결 기준
자료: 클로봇,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서비스 매출 세부 항목별 연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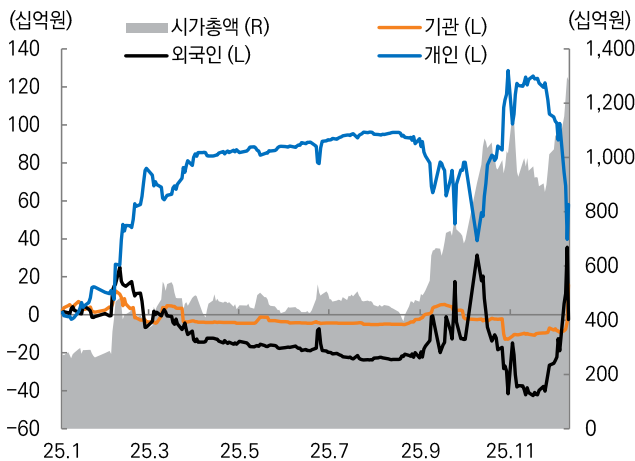
주: 별도 기준
자료: 클로봇,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사업부별 연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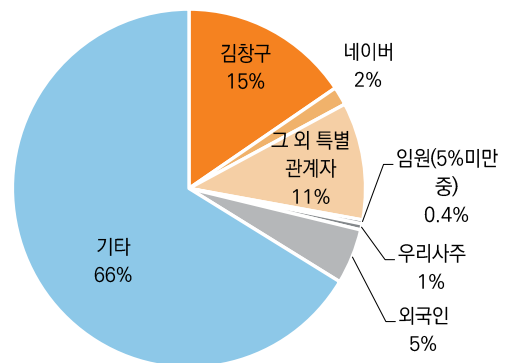
주: 별도 기준
자료: 클로봇,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클로봇 수급 추이



자료: Quant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클로봇 지분율



자료: 클로봇,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클로봇 (466100)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0	0	24	33
매출원가	0	0	21	28
매출총이익	0	0	3	5
판매비와관리비	0	0	9	13
조정영업이익	0	0	-6	-7
영업이익	0	0	-6	-7
비영업손익	0	0	-16	0
금융손익	0	0	0	1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0	0
세전계속사업손익	0	0	-22	-7
계속사업법인세비용	0	0	0	0
계속사업이익	0	0	-22	-7
중단사업이익	0	0	0	0
당기순이익	0	0	-22	-7
지배주주	0	0	-22	-7
비지배주주	0	0	0	0
총포괄이익	0	0	-23	-7
지배주주	0	0	-23	-7
비지배주주	0	0	0	0
EBITDA	0	0	-5	-7
FCF	0	0	-4	-8
EBITDA 마진율 (%)	-	-	-20.8	-21.2
영업이익률 (%)	-	-	-25.0	-21.2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	-	-91.7	-21.2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
유동자산	0	0	30	66
현금 및 현금성자산	0	0	7	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0	0	5	8
재고자산	0	0	2	4
기타유동자산	0	0	16	45
비유동자산	0	0	5	4
관계기업투자등	0	0	0	0
유형자산	0	0	1	1
무형자산	0	0	0	1
자산총계	0	0	35	70
유동부채	0	0	7	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0	0	1	3
단기금융부채	0	0	1	1
기타유동부채	0	0	5	4
비유동부채	0	0	1	2
장기금융부채	0	0	1	0
기타비유동부채	0	0	0	2
부채총계	0	0	8	10
지배주주지분	0	0	26	60
자본금	0	0	1	12
자본잉여금	0	0	63	92
이익잉여금	0	0	-40	-47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자본총계	0	0	26	60

예상 현금흐름표 (요약)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4	-8
당기순이익	0	0	-22	-7
비현금수익비용가감	0	0	20	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0	0	1	0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기타	0	0	19	2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및부채의 변동	0	0	-1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0	0	-3	-2
재고자산 감소(증가)	0	0	0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0	0	-1	2
법인세납부	0	0	0	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9	-29
유형자산처분(취득)	0	0	-1	-1
무형자산감소(증가)	0	0	0	0
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0	0	-16	-28
기타투자활동	0	0	8	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13	39
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0	0	1	-1
자본의 증가(감소)	0	0	64	40
배당금의 지급	0	0	0	0
기타재무활동	0	0	-52	0
현금의 증가	0	0	0	2
기초현금	0	0	7	7
기말현금	0	0	7	9

자료: 클로봇,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2021	2022	2023	2024
P/E (x)	-	-	0.0	-28.5
P/CF (x)	-	-	0.0	-41.8
P/B (x)	-	-	0.0	3.7
EV/EBITDA (x)	-	-	3.9	-24.0
EPS (원)	0	0	-2,059	-313
CFPS (원)	0	0	-197	-213
BPS (원)	0	0	1,242	2,440
DPS (원)	0	0	0	0
배당성향 (%)	-	-	0.0	0.0
배당수익률 (%)	-	-	-	0.0
매출액증가율 (%)	-	-	-	38.0
EBITDA증가율 (%)	-	-	-	적지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	-	-	적지
EPS증가율 (%)	-	-	-	적지
매출채권 회전율 (회)	-	-	9.2	5.2
재고자산 회전율 (회)	-	-	20.1	11.1
매입채무 회전율 (회)	-	-	46.4	17.3
ROA (%)	-	-	-129.8	-12.9
ROE (%)	-	-	-174.1	-15.7
ROIC (%)	-	-	-227.9	-109.6
부채비율 (%)	-	-	32.5	15.9
유동비율 (%)	-	-	428.4	818.1
순차입금/자기자본 (%)	-	-	-75.4	-85.7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	-	-51.7	-99.6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